

# 친환경차 환상 버려야... 경제성 따지면 역시 '내연기관'

(디젤·가솔린)

## 자동차공학회 로드맵 발표회

“내연기관차 대체 어려울 것”

기술-부품 제휴·공동개발 강조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미래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가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공학회(KSAE)는 1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급변하는 환경: 자동차 기술의 현황과 전망·자동차 동력,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했다.

‘파워트레인 종류별 적합성 비교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종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자동차 시장은 파워트레인 기술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친환경성 ▲에너지안보 ▲기술성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배 교수는 “미래 친환경차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과거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전망했던 조사



1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 참석한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연구위원회 이종화 위원장(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아주대학교 교수), 배종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정표 한양대학교 교수, 김민수 서울대학교 교수, 허건수 한양대학교 교수(오른쪽부터)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4년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오토모티브 월드 카 인더스트리 포캐스트가 발표한 2015년 자동차 시장 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자동차 총 판매량의 경우 예측치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내연기관차는 45% 증가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예측치에 크게 못미치는 93%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배 교수는 “내연기관은 상대적 저비용 고효율화의 다양한 기술개선에 힘입어 2030년에도 자동차에 탑재율 80% 이상의 주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성과 기술력 관점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로 주춤했던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연료 효율성과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높인 디젤 엔진으로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최근 2018 제네바모터쇼에서 “디젤 포기 않고 이동 서비스로 변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주목받은 친환경차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도 꼬집었다.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차는 코발트·리튬 등 광물자

원에 의존하는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각국이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디젤 자동차 퇴출 등 규제를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효율화와 초저배기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다. 국내외 친환경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약 236만대에 달했던 시장 규모는 올해 301만대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친환경차 시장 역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지난 2015년 4만1978대에서 2016년 6만8826대로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준으로는 8만8713대가 집계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자동차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격변기에 직면한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분야의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트롤 타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부품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간의 기술 제휴 및 공동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로드맵’에 대해 발표한 김민수 서울대 교수는 “미래 자동차 시장은 규제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내연기관을 비롯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훈 기자 ysw@metroseoul.co.kr

## 외국인, 지난달 국내주식 4兆 순매도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4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인 상장주식 3조9610억원 순매도, 상장채권 2조6410억원을 순투자해 총 1조3200억원이 순유출됐다. 주식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됐지만 채권은 순유입이 지속됐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2조5000억원, 코스닥 1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액은 621조1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각각 2조2000억원, 1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2조1000억원), 미국(-1조8000억원), 케이만아일랜드(-4000억원) 등이 매도에 나섰다.

보유규모는 미국이 256조2000억원으

로 외국인 전체의 41.2%를 차지했으며, 유럽(28.0%)과 아시아(12.3%), 중동(4.2%)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상장채권 4조485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641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은 2월 말 기준 총 103조4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1000억원), 아시아(1조1000억원), 미주(3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44조4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2.9%를 차지했고, 유럽(31.1%)과 미주(12.1%)가 그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에 주로 투자했고, 잔존기간 1~5년 미만의 순투자 규모가 컸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스피지수 2490선 회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로 249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7포인트(0.42%) 오른 2494.49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 금감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착수

의혹 확인 ‘특별검사단’ 별도 편성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이 13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채용청탁 의혹을 받은 최홍식 금감원장이 사임을 표한지 하루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특별감사의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 기간만도 3주로 잡았으며, 일단 의혹이 있는 2013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단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감사단장은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로 감사반은 감사총괄감사반, 내부통제반, IT반 등 총 3개로 구성됐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잡았지만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감사대상 기간도 최 원장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2013년을 먼저 들여다보겠지만 역시 필요할 경우 확대해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후에는 최종 결과만을 감사에게 보고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울러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전일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당시 대학 동기로부터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인사 담당 임원에게 그의 이름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하나은행의 인사에 간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당시 본인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금융권의 채용비리 조사를 맡은 금감원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日 취업하려면 대학교 3학년부터 준비해야”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한일 채용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해 대학교 3학년에서부터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인재상과 일본어 능력 등의 준비 역시 요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취업 이렇게 준비하자’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인재상과 기업문화 차이, 채용 정보 등과 함께 일본 취업 성공자의 노하우 등이 공유됐다.

유현주 퍼솔코리아(일본인재비즈니스 업계 대표기업 퍼솔그룹 자회사) 해외취업부 대표는 “일본은 협동성, 소통 능력, 성장배경 등 인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즉시 전력보다는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

는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 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며 “인문계·이공계 모두 비즈니스 레벨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취업 성공 노하우를 발표한 박재섭 씨(일본 오리츠(ORIX)그룹 입사예정자)는 “일본 특유의 채용절차와 문화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실업난과 일본의 구인난 속에서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은 모두 윈윈”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고다이로 나오와 이상화 선수가 상호 존중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한일 관계도 청년인재 교류를 통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 금융위, 지난해 4분기 공적자금 1481억 회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현재 1481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생명 지분매각(블록세일)을 통한

회수액이 159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 행사) 83억원 등을 회수해 211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BNK금융지주(경남은행 매수

인) 손해배상소송 패소로 63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15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8.5%를 기록,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